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⑪ “사랑해요!” 급우들아, 고맙다!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⑩ 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교류는 ‘다른 세계’

🕒 September 04, 2013



좋아요

25

3월 입학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하고 말았다. 6개월 가까이 매일 다닌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애기다.

지난달 20일에 열린 졸업식에서는 식은땀이 몇질 않았다. 우선, 원장님이 졸업생 모두에게 한 명씩 졸업장을 수여하는 시간에 일어난 일. 내 차례가 되자마자 딸 같은 우리 반 여학생들이 일제히 우렁찬 목소리로 외친 것이다. “오빠~! 사랑해요!”

물론 계획된 장난이다. 속뜻은 “그 연세에 청일점으로 잘 버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는 의미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루마니아, 이집트, 그리고 일본. 6월에 6급으로 올라가 보니 우리 반 학생 12명은 국적도 다양했는데, 나를 뺀 전원이 여성인 것도 놀라웠다.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은 원래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 편인데, 그렇다곤 해도 너무하지 않나. 처음엔 당황했지만 20대에서 30대 처자들을 상대하며 ‘친근하고 재미있는 아버지’ 이미지를 고수한 결과가 낳은 것이 이번 성원. 딸들아, 고맙다!

졸업식이 끝나고 단상에서 여흥이 시작돼 졸업생과 재학생이 노래와 춤 등을 선보였는데, 하이라이트는 우리 반이 만든 영상이었다. 학교 안팎의 활동을 돌아보며 얼마나 힘들게 한국어와 씨름해 왔는지를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보여주는 코믹한 영상이다. 다 함께 스토리를 짚지만 각본, 감독, 주연으로 크게 활약한 건 인도네시아에서 배우의 길을 꿈꾸는 엠마(23)라는 여학생. 영상에서는 남학생 역할로 명연기를 펼쳤다.

예전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나는 반년 동안의 숙성재배였지만, 반 친구들 대부분은 1년 남짓 고락을 함께 해왔다. 처음 무렵 뒤죽박죽이었던 회화, 도서관에서 숙제하다 조는가 하면 드라마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던 교실, 이윽고 싹튼 사랑과 이별……. 그런 장면이 이어지며 큰 웃음을 자아냈다.

자, 그럼 내 역할은 뭐였는고 하니, K-POP을 좋아하는 아저씨 유학생. 게다가 엠마 감독의 간곡한 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소녀시대의 히트곡 ‘Gee’ 에 맞춰 춤추는 장면을 연기할 줄이야……. 덕분에 장내는 웃음바다가 됐지만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어디서 들었는지 조선•보 기자도 와서 졸업식 모습을 기사화해, 후일 이를 읽은 지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



조선일보에 실린 졸업 관련 기사. 연재 중인 칼럼 ‘東京小考.’



More AAA

Facebook

Twitter

●양국관계 둘러싼 취재요청 쇄도

그렇다고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싸늘해진 속에서 그런 활동만 한 건 아니다. 특히 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각종 매체의 인터뷰 세례를 받았었다. 관심은 한결같이 헌법개정의 향방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인식, 양국관계 타개책 등, 그렇잖아도 성에 안 차는 한국어 실력에 무거운 화제뿐이라 혀가 꼬이기 일쑤였다.

그때 떠오른 것은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다. 집필 중인 동아일보 칼럼 ‘東京小考’ 8월 22일 자에서는 함께 졸업한 일본 여학생들 이야기를 소재로, 양국관계를 더는 엇갈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두 나라 정상에게 굳게 부탁했다.

그렇게 유학생들은 눈 깜짝할 새 끝을 맺었다. 그러하니 이 편지도 슬슬 접어야겠지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그즈음 주간조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운영하는 한국어사이트 ‘아사히 아시아 안테나’ 에는 지난 3월 21일부터 ‘서울에서 쓰는 편지’ 라는 글이 실리고 있다. 8월 10일까지 10회가 실린 이 기사는 인기가 높다. 한 일본 언론인이 퇴직 후 한국에서 교수 및 학생 신분으로 혼자 살면서 겪은 일과 감상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인기가 높다는 말은 과찬이지만 감사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금방 펜을 놓을 수는 없겠다. 다행히 서울대와 동서대에서 마련해 준 자리도 남아 있다. 그런 고로 이제부터는 두 나라를 왔다갔다하며, 이 편지도 몇 통 더 적어 가 보기로 하자.

일본 국제교류 센터 웹사이트

<http://www.jcie.or.jp/japan/others/kiji/index.html#20130822donga>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 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2013년 1월 아사히신문 주필 자리를 떠나, 3월부터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와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園오기 씨와의 대담)등이 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서울에서 쓰는 편지 졸업 한국어교육원 서강대 인터뷰

1

Share

좋아요 25

관련기사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⑩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류는 ‘다른 세계’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 “응?” 했다. 일본사람 지인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나

좋아요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⑨즐겁든 까, 신촌에서의 하 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나는 자취가 서툴고 외식만 나날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 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

좋아요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⑧ 대학 생들의 지적 교류, 한관계에 희망 보

July 05, 2013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 선을 흠어 태극기를 연상하 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정치’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다.

좋아요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⑦강연, 원, 공연. 세 가지





‘고엔’ 으로 젊음 되찾다

June 20, 2013
강연, 공원, 공연. 한국어 학습자
선지 일본어 발음은 다 똑같
주는 그런 ‘고엔’ 의 연속
된’ 한 주였다.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⑥ ‘배 (拜啓) 김대중 선비님’ 나를 비판하는 기사에 답장

June 03, 2013
한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가 있다.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씨다. 김 고문은 언
로 지금도 조선일보에서 칼
중 한 편에서 내가 비판의 대

